GS · 코오롱 임금동결의 교훈

화학기업은 임금수준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을 비롯해 정유 · 가스기업의 연봉수준은 우리나라에서 톱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SK나 GS칼텍스, 호남석유화학, LG석유화학 등은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 7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봉 30위 선정에서도 정유 · 가스를 포함 화학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이니 어느 누구도 연봉수준이 낮아 일할 맛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화학기업 노조들은 봄철부터 여름까지 해마다 연례행사라도 되는 듯 파업을 벌이기 일쑤이고 공장가동 중단에 신증설 작업 차질까지 일반 상식수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 매년 벌어졌다.
아마도 임금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강경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좀이 쑤시고 지도부의 위상과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아가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향상시켜 달라고 억지를 부려도 받아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 플랜트는 연속공정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가동중단을 위협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라도 하면 아무리 억지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이다.
여기에 강경한 노조들은 플랜트 훼손 운운하며 협박까지 일삼는다고 하니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화학기업들이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2007년 들어 화학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무기로 강경투쟁에 돌입할 기운을 축적하고 있을 시점에서 GS칼텍스와 코오롱 노조가 임금동결을 먼저 제안하며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GS칼텍스는 국내 2위의 정유기업으로 최근 정제마진이 악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양호한 우량 화학기업이고, 코오롱은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사양화로 자칫 생사기로에 서야 하는 탁한 처지로 양사가 처한 입장은 크게 다르다.
다만, GS칼텍스나 코오롱 모두 과거에 노조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파업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파업의 뒤끝에 노조 지도부들이 몽땅 잘려나가는 홍역을 치른 비슷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GS칼텍스가 3월29일 여수공장에서 임금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다.
주목할 점은 정유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동참하기 위해 노조가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2004년 8월 20일간 파업하면서 여수에서 광주, 서울로 이동투쟁을 전개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망신시키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극한투쟁을 벌였던 노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행태이다.
물론 회사가 조합원 600명을 징계하고 20여명을 해고하는 등 강력 대처해 강경 지도부가 몰락하고 온건 지도부가 노조를 장악한 끝에 나타난 현상으로, 2004년 말 노사화합과 함께 영구 무분규를 선언했고, 2005년과 2006년에도 임금 인상을 회사에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회사는 2005년 기본급을 4.1% 인상한데 이어 2006년에도 3.3% 인상하며 화답했었다.
섬유 사양화와 함께 공장 가동중단과 일부사업 철수로 홍역을 앓았던 코오롱도 3월29일 2007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코오롱 역시 노조가 먼저 나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코오롱 노조는 섬유사업 구조조정에 맞서 강경노선을 치달았으나 역시 강경 지도부를 위주로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2006년 말 전격적으로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고, 임금 20% 인상 요구안을 준비한 것까지 내팽개치고 경영사정 악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금동결을 자청했다.
강경투쟁과 파업과 해고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적 변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먼저 스스로의 위상을 인식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면 불필요한 마찰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위상에 걸맞는 사회 · 경제적 부담이 지워질 때 현재의 임금수준도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7/4/9>